

효성, PTT로 고급 카펫시장 진입

정전기 없고 항균성 탁월한 고부가제품 ... 국가 기반기술 집중육성

효성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고 항균성이 뛰어난 고기능 PTT(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 카펫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고 4월8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PTT를 사용한 신제품 <이온프리(Ion Free)>를 선보였다.

PTT 섬유는 1941년 최초 개발된 Aromatic Polymer 중 하나로 1995년 Shell Chemical에 의해 새로운 원료 제조공법이 개발됐다.

기존 소재인 나일론과 PP(Polypropylene)에 비해 내구성과 오염을 방지하는 특성이 뛰어나고 정전기 발생이 현저히 낮으며 우수한 탄성 회복력을 갖추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카펫용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PTT 소재는 Shell과 DuPont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PTT제품의 상업화에 따라 Shell은 원료 공급을 2010년까지 한해 100만톤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효성의 <이온프리>는 PTT 소재 자체에 이온이 없으므로 얼룩의 원인인 음이온의 화학적 결합이 발생하지 않아 영구 오염이 되지 않으며, 얼룩이 묻어도 간단한 청소로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또 건조가 빠르고 수분 함유량이 매우 낮아 미생물의 생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균처리가 돼 있어 세균이나 곰팡이 등 유해균으로부터 안전하다.

자체적으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기에 예민한 첨단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곳이나 노약자, 알레르기나 천식 등의 환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온프리>는 2년 동안 산업자원부 국가산업 기반기술로 지정돼 기술개발 자금 지원을 받아 숭실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효성은 현재 총 120만평, 1000억원대의 국내 카펫 시장에서 점유율 42%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 출시된 <이온프리>로 수입품 위주였던 고급 카펫 시장을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4/09>